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김한웅
(우 463-0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수의과학회관 402호)
(0342)707-5722 ~ 4 FAX (0342)707-5725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02)2263-3598

제6권 제7호 통권61호



남북통합시대의 계육산업의 진로

박영인 본회고문, 서울대 초빙교수

지난 6월 중순, 평양에서 남북정상이 만났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유분방한 언행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닭공장(chicken plant)을 언급하면서 그 규모와 시설을 은근히 자랑하였다. 세계화와 남북통합시대를 맞아 우리로 하여금 계육산업의 앞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북한 닭공장은 통합경영체

한국대표단이 방문했다는 만경대 닭공장은, 국가가 경영하는 전시/시범 목적의 대규모 단일 통합체이다. 1998년에 필자가 직접 돌아본 바로는, 60년대 중반에 기본시설을 갖춘 구라파형 노후 설비이고 운영 내용은 매우 부실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안내 받은 남한의 비전문가에게는 연간 백만 수(?)를 처리하는 훌륭한 시설쯤으로 비쳐졌던 모양이다.

어떻든 북한의 닭공장(본래는 양계장, 지금은 병아리-도계의 일관 경영체까지 포함)은 국영/협동농장의 체제로 운영된다. 80년대 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구조에서 상당한 수준의 닭고기가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90년대에 들어 식량이 부족하고 국력이 쇠퇴하면서 닭공장 경영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종계, 사료, 약품, 시설, 도계, 위생 어느것 하나 정상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닭공장 체제는 국가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수직 통합된 계열경영, 바로 그것이다. 모든 의사 결정과 농장, 공장, 시장(배급)의 삼장기능(三場機能)이 중앙 집중적으로 수행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통합경영 방식이 사회주의 체제와 유사하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 단일/일관 관리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통합경영체계는 자본주의 삼대 지주인 소유, 경쟁, 이윤 추구의 원리에 따라 조직, 운영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앞으로 북한의 현체제를 바꾸어, 여러 개의 지역별 통합주체(기업체 또는 협동조합)가 그 구역 내 협동농장

의 개별 농가를 사육주체로 하는 계약생산구도로 만들면 바로 통합경영체계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취택, 병용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실사구시하는 산업 선진화

한국 계육산업의 구조개선은 지금 거의 완결 단계에 놓여 있다. 80년대 이전의 사육중심(생산)으로부터 90년대에 도계/가공 지향(소비)의 경영적 통합체계가 새로운 골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또 수출입도 자유화되어 WTO시대의 세계경쟁을 실감케 한다.

금후의 과제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가 적자생존(適者生存), 우승열패(優勝劣敗)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을 합리화 하는 데에 있다. 즉 3 I (Individual - Integration - Industry/International)와 4 P (Product, Price, Place/Distribution, Promotion) 대책에 최선을 다하면 한국 계육산업이 국제경쟁에서 먼저 살아남고, 그 속에서 통합/사육주체가 공생, 공존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우리는 사이버시대의 e-business/commerce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경쟁력을 키우며 세계 시장에 영합하는 산업선진화에 총매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기본 원동력은 역시 개별 통합주체(integrators)에 있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것은 산업의 협회(KCC)라 할 수 있다. 국내외의 여러 현안들은 매우 심도 있게 사실을 바탕으로 풀어가는 것이다. 모두와 하나를 위하는 길(one for all, all for one)을 함께 찾아가면 된다.

남북통합의 분위기와 관련하여, 남한 계육산업의 통합 기법을 낙후한 북한에도 적절하게 도입, 실현시키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줄 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이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 닭공장 사업인 만큼, 사료효율이 가장 높은 계육부문이 빨리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2면 하단에서 계속)